

민주주의의 창의적 실현 여정과 ‘사회적 영성’ 회복의 과제

박소진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및 창의융합연구소 소장¹⁾

초록

이 논문은 2024년 12.3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주체들의 창의적인 연대가 창의성과 영성의 통합적 특성을 보여주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내적 성숙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보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과제로 창의적 연대와 ‘사회적 영성’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창의적 연대의 바탕인 창의성은 온전한 자기 이해를 향한 인간의 경험, 사고, 감정의 소통을 통해 발현되는 고유한 특징으로, 자신의 고유성에 대한 믿음, 타자에 대한 개방성, 나와 타자의 연결성에 대한 통찰을 포함하는데, 이는 인위적인 경계와 단절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공동선으로의 합일을 촉진하는 영적 특성과 상통한다. 타인과의 근원적인 연결성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영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 및 상호연결성과 공명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영성이 구성원의 성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면화되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체화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성’을 강조하는데, 주로 영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키워드

12.3 불법 계엄, 창의성, 창의적 연대, 사회적 영성, 내적 민주주의, 일상성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공표된 불법 계엄의 후폭풍을 지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고비를 넘긴 시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원의 창의적 연대와 ‘사회적 영성’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12.3 계엄과 이후 이어지는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 구성원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 특히 여의도 광장에서부터, 한남동, 광화문, 안국동, 남태령에 이르기까지 이삼십 대 여성들이 이끌었던 창의적인 시위는 민주 시민의 자발적 발화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창의성을 담보하는 바탕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인의 연대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회복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민주주의와 창의성의 순환적 연결성을 확인해 주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의 유쾌한 저항은 어느새 민주적인 시위 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한편,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던 많은 이삼십 대 여성들이 이후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다시 소외됨을 목격하면서 상대적으로 섬세한 여성 관련 공약을 내놓았던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을 필두로 정치 및 사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부상했던 한 진보 정당이 내부에서 일어난 성 비위 사건의 정당한 처리 요구를 무시한 사실이 대선 이후에 폭로되었다.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개혁을 외치는 진보 정당이 당내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한 동료의 성적 수단화에 둔감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작용하는 뿌리 깊은 비민주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민주주의 역사의 큰 파고 속에서 드러난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삶의 일상적 현장에서 민주적 가치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 논문은 이 질문의 연장선에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의 현실 속에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마저도 소위 대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화해 왔다. 현실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이 논리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일역을 담당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큰 위기 후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향방을 고민하는 현재 시점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특히 소외되어 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에 주목할 때라 하겠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외부의 대상을 직면하고 이에 맞서는 동시에 일상적 관계에서 수평성과 상호 존중의 민주적 가치가 그야말로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3 계엄의 극복 과정에서 이삼십 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연대하여 보여준

시위를 규정하는 핵심어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독창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발화, 열정적 대중 문화에 녹여낸 냉정한 저항력은 디지털 세대의 반짝이는 응원봉과 촛불의 절묘한 결합이 낳은 '빛의 혁명'이었다. 창의성(creativity)은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방법이나 장치,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나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킨다"(Britannica dictionary, n.d.). 하지만 창의성은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내적 갈망과 속성을 반영한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1929-2021)은 인간의 독특한 형질이라고 여겨지는 창의성을 "독창성을 향한 내면적 추구"라고 정의하며, 창의성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이해"라고 강조한다(2017/2020, p. 15). 윌슨 역시, 새로움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창의성의 원동력으로 지목하는데, 새로운 과정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며, 기존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나 세계를 만나면서 느끼는 심미적 기쁨과 전율 등이 창의성이 일으키는 인간의 반응이라고 소개한다(p. 15). 이렇게 볼 때, 창의성은 인문학이나 과학, 예술 등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전한 자기 이해를 향하여 인간이 새롭게 경험하고 사고하며 느끼는 모든 것들의 소통을 통해 발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창성, 새로움, 내면적 동기, 다양한 요소의 교류와 통합을 통해 발산되는 창조 능력 등을 창의성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할 때, 창의성은 타자에 열린 내적 유연성과 모든 사물과 관계의 연결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삼게 된다. 더불어 인간의 독창성 추구는 자기 존재의 고유성에 대해 인간이 지니는 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창의성은 개인의 고유성을 전제로 한다. 곧 창의성은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타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다른 성질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면서 새로움을 지향하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자신의 고유성에 관한 믿음, 타자에 대한 공감, 나와 타자의 연결성에 대한 통찰은 영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영성의 이해는 여러 전통적인 종교 사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되, 매우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제도적·법적인 형식을 꾸준히 발전시켜 가야 하는 과제 외에 그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적 시민의 연대로서의 사회적 영성에 주목해야 함을 고찰하는데, 영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와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논의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요 종교의 영성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논하는 것은 필자의 이해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 전반과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궤적에 양면적이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종교가 그리스도교(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리스도교의 독점적 영향 아래 발전했던 유럽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 변화 및 제도 종교의 한계와 쇠퇴에 직면했을 때,

당시 종교사회 학자들이 숙고하고 전망했던 ‘새로운 종교’의 특징이 현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여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영성의 결핍에 대한 문제의식

물질적 풍요 속에서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정신적 빈곤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듯이, 정치 발전에서도 외적 제도의 발전과 내적 성숙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는 현실이다. 그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학자 김상봉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영성의 결핍’을 제기한다. 그는 ‘학벌’이나 ‘기업의 소유권’ 등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진지한 사유의 결과물을 학계 및 대중들과 공유해 온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자신의 철학적 소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 해임되는 등 행동하는 지성인으로도 알려져 왔다. 2024년에 출판된 『영성 없는 진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그는 이 위기가 본질에서 제도와 법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적 상황”(p. 32)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통상 정치는 현실의 문제이고 영성은 종교의 문제로 치부되기에 민주주의와 영성이 무슨 상관이나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상봉은 영성이야말로 정치의 핵심이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뿌리는 영성의 부재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 역시 그 놀라운 희생과 제도적·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성 없는 진보였다고 평가한다. 1919년 3·1운동과 1960년 4·19가 보여준 “혁명적 영성”(남기업, 2024, p. 100)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1970년 전태일의 희생에 대해 김상봉은 전태일을 “분신으로 이끌었던 것은 계급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사랑”(김상봉, 2024, p. 75)이었으며,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역시 “그 자체로서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p. 97)이었다고 성찰한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전 진보 운동의 동력이었던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p. 85)이 희미해지고, 구성원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도 약화하면서 양당의 정권 교체가 반복될 뿐 민주적 가치의 진정한 실현은 답보했다고 진단한다.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영성은 합리적 이성을 넘어선 진리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나 신비주의적 체험을 뜻하기보다는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개념”(p. 14)이다. 그는 “역사가 선을 향해 진보한다”는 믿음과 “내가 그 전체 역사와 근원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p. 15) 믿음이야말로 정치를 진영 간의 권력 다툼에서 구하고 타자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야에서 벗어나 역사의 발전과 가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역설한다. 타

인의 고통과 기쁨이 나의 고통 및 기쁨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역사 안에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믿음이 영성이라는 것인데, 한국 민주주의는 이 연결성에 대한 믿음과 통찰을 상실한 채 당파적 유희리에 기반한 권력투쟁에 매몰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의 책 『영성 없는 진보』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그 비평의 주요한 틀로 삼고 있지만, 나와 내가 우리 안에 하나라는 공동체성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교에 국한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김상봉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사상을 고찰할 때, 일관되게 등장하는 사상적 특징이 나와 전체가 하나이며, 개인의 마음이 큰 하나의 마음 안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한다. 신라의 고승 원효의 일심(一心)에서부터 퇴계 이황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이나 수운 최제우의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이 그 주요한 예이다(김상봉, 2024, p. 11). 그런데 이런 종교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진리인 “나와 이 세계 전체가 하나라는 것”(p. 14), 전태일이나 예수의 삶이 보여준 타인을 위한 자신의 희생은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속에서 나를 되찾는 것”(p. 15)이라는 진실은 육안(肉眼)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인식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과 영성의 일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우, 1980년대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까지의 민중의 자기희생과 헌신의 바탕이었던 타인과 나의 근원적인 연결성에 대한 믿음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실종되었고, 이 현상이 민주주의의 위기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와 타인이,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물론 사회개혁 운동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장이 아니라 권력 쟁취와 지배욕이 난무하는 “육망의 경연장”(p. 16)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봉의 이런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근대 이후만 논하더라도,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근간으로 출발한 동학운동에서부터 한민족의 항쟁 역사는 130년에 걸쳐 이어져 오는데, 이를 ‘믿음과 영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의 구체적인 현장을 간과하고 자칫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시각이 대표적이다(남기업, 2024, p. 102). 또 2016년의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과 시위의 의미성을 간과하고 진영 논리로 단순화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그가 ‘개인과 전체의 합일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전체주의에 대한 옹호와 혼동되어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더불어, 12.3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내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법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의 준엄함을 흐리게 할 우려도 있다.

3. 외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넘어서

이런 비판적 지점에도 불구하고, 영성의 결핍을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로 진단하고, 영성의 회복을 그 과제로 지목하는 김상봉의 시각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해 보인다. 20세기 세계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평가할 때, 한국은 가장 역동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루어 온 나라로 꼽힌다.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 후 맞은 해방과 더불어 한국은 민족의 허리가 잘리는 분단의 고통과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다. 하루속히 회복되길 염원했던 한반도 통일과 민족 화합은 80년에 가까운 현재까지 숙원 과제로 남아있고, 분단의 상흔은 그동안 한국이 이루어 낸 전대미문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사회적 민주화 과정에서도 공고해져 우리 사회의 위기와 병리 현상의 근인(根因)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십 년간 민중의 반복적인 희생과 저항으로 얻어낸 제도적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정착되었다고 믿었던 시기에 온 나라가 목격한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외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화려한 경제발전 뒤에 가려진 부조리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를 폭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드러난 대통령의 무능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共怒)가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고, 이어진 민주 정부의 재집권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갈망과 수호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 정부의 의욕은 있었으며 실패한 사회개혁, 정책 실패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민심 이반이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후 정치·사회·문화·경제·행정·교육 등 전방위로 몰아친 폭력적인 국가 운영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부패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민주주의 시스템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공포한 불법 계엄은 정부의 무능과 탐욕에서 비롯된 폭정의 정점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혹독한 파고를 넘기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한국 사회는 극도의 긴장을 견뎌야 했다. IMF 경제위기를 넘기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제도약을 구가하며 물질주의에 취해 있던 한국 사회를 뒤흔든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이 성찰과 질문의 중심에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영성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영성에 대한 강조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성과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국제적인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통상 제도적 민주주의의 요건으로 1) 자유로운 선거와 모든 시민의 투표권 보장 2) 법의 공평한 적용과 법에 따른 권력의 제약 3) 인권 존중과 자유의 보호 4) 정치적 다양성의

존중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국제기관인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V-Dem의 2025년 보고서는 여기에 실린 한국 시민들의 시위장면 사진으로도 유명한데, 이곳의 조사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88개국이다(V-Dem Institute, 2025). 더불어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모든 척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결론을 맺고 있다. 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24년 보고에서도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는 불과 25개국에 불과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된 46개국을 합친 경우에 71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 단계 강등되어 미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 책임자인 조안 호이(Joan Hoey)는, 2006년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이래로 "권위주의 정권은 계속 강화되면서 증가하는 한편 전 세계 민주주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2024)고 평가한다. 21세기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여러 기관의 진단에 대해, 이는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각국의 민주화를 과대평가한 것에서 생긴 해석의 오류이며, 상당수의 국가가 원래의 권위주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Levitsky & Way, 2015, p. 57), 한국 사회가 성취한 법적·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단계마다 시민들의 희생 위에 이룬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제도로서의 외적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다수결의 원칙, 권력 분립,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형적인 틀을 강조한다면, 내적 민주주의는 국가나 사회라는 전체 틀을 넘어서 정당, 노동조합, 시민 단체, 가정이나 직장 같은 다양한 내부 조직 및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구성원 사이에 민주적인 원칙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 의사가 적절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며, 이 가운데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뜻한다. 곧 외적 민주주의가 보이는 구조와 틀을 강조한다면, 내적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민주적인 가치가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일상적 삶에 관여한다.

외적 민주주의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적 민주주의가 허약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비민주적 차별과 혐오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 사회 역시 세대, 인종, 국가, 성, 외모, 학벌, 계층, 지역, 이념, 경제력 등 수많은 기준에서 차별이 남아있거나 심지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진보 정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외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내적 민주주의의 결핍 사이의 뚜렷한 괴리를 보여준 최근

사례이다. 유럽의 내적 민주주의의 현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진보 정당들은 정당의 가치를 따라 보수 정당보다 내부 민주주의를 증시하며, 수평적인 연결 모델을 선호하고, 구성원의 참여와 권력 분산 및 투명성을 옹호하며, 이런 특징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Bronet & Borge, 2025). 한국 사회에서도 진보 정당은 유사한 성향을 보이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개혁의 담론을 주도해 왔지만, 위의 사건은 어떻게 이들도 내재화한 수직적 사고방식에 따라 내부의 위계 관계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 타자를 수단으로 삼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이며, 한국 사회의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나아가, 민주적 가치의 결핍이 비단 정당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차별의 사회적, 개인적 내재성을 분석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김지혜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의식과 차별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신화일 뿐이다”(2019, p. 10)라고 일갈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타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p. 10) 조금이라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곧 평등과 상호 존중의 민주주의 가치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무의식에 이르는 성찰과 존재론적 변화를 거쳐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내면화된 차별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작업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성찰과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요컨대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그것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민주주의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의 목표와 원칙을 다시 점검할 필요”(이황직, 2021, p. 45)가 있으며, 이는 내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로 수렴된다.

4. 사회적 영성의 회복과 창의성의 발현을 통한 민주적 가치의 내재화와 실천

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외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외적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대치되지 않으며, 외적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이의 작동 수준과 방식을 성찰하고 감시하는 사회 문화를 형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내적 민주주의의 실천이 어려운 작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의 성장 여정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과정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개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고 볼 때, 내적 민주주의는 그 바탕이며, 내적 민주주의의 성

속 없이는 힘들게 축적한 민주적 제도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지난 12.3 계엄은 확인해 주었다. 내적 민주주의는 자신과 사회 내부의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하는 폭력적 위계성과 차별성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성찰적 시민을 전제로 하며, 이 성찰적 능력은 수평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의 주요 특징이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 놓인 조건이 무엇이든 모든 인간이 고유한 존재로 평등하다는 민주적 가치와 고유한 존재들의 상호연결성을 통찰하는 영성이 사회 제도의 개선 및 구성원 각자의 성찰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내면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 공동체에 내면화된 영성을 '사회적 영성'이라고 부르코자 한다.

사회적 영성은 한국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이에 대한 연구도 희박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며 동일한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의 연구실장인 김진호 외 (2014)은 『사회적 영성』(2014)에서, 한국 사회의 감성 흐름을 성찰하며, 영성을 공감 행위와 공동체적 관계성으로 정의한다. 저자들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정이 자본의 통제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고통과 기억, 저항의 의미를 통해 사회적 영성을 재발견하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영성의 자취를 찾아내고자 시도한다. 이 책은 영성이 단순한 윤리적 언설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영성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데, 저자마다 그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지만, 공통으로 사회적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이다. 통상 영성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염원이 스민 비판적 상상력"(김응교, 2014, p. 86)을 '사회적 영성'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사회적 영성이란 사랑, 치유, 희생, 구원 등 도구적 이성의 사용을 뛰어넘는 종교적인 덕성이 교회 밖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황진미, 2014, p. 93)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12.3 불법 계엄과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를 고민하며 민주적 가치와 영성의 사회적 내면화를 뜻하는 용어로 필자가 생각했던 '사회적 영성'도 이들이 역설한 영성의 공동체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사회적 영성은 명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적 위계 구조 안에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작동하는 차별적 시각과 행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과 성찰의 과정을 담지한다.

영성이 그 본질적 특성에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음은 성경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성경에서 성령으로 표현되는 영은 종종 바람으로 상징되는데, 우주의 본질적 차원으로 이해되던 하늘과 땅을 통교하며 (공동번역 성서, 1986, 요한복음 1:32) 이어주는 연결자이자, 서로 다른 언어의 일치된 이해를 이루는 통합자(공동번역 성서, 1986, 사도행전 2:6-8)로 묘사된다. 연결성과 자연스러운 통합성을 속성으로 하는 영은 또한 불로 상징되면서, 차별에 기반한 모든 억압적 관계를 허물고 태우며,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민족과 인종 사이의 완고한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생명을 형제이자 자매인 수평적 관계로 초대하는 주체이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성령은 개인의 고유성과 재능

이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돕는다(공동번역 성서, 1986, 고린도1서 12:7). 곧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영성은 인위적인 경계와 단절을 거부하고 모든 주체의 자유로운 소통을 포착하여 촉진하는 특성으로 여겨져 왔는데, 한 개인이 초월자 및 세상과 맺는 내밀하고 고유한 관계성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성은 공동의 선을 향해 자유롭게 주체들을 연결하고 모으는 속성으로 인해서 특정한 종파나 제도적 종교에 제한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개인적 자유 및 선택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개개인의 자발적 연대로 이루어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양태와도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성의 이런 사회적 속성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신자유주의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개인 영성에 대한 간과나 부인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개인의 “내면 추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김경은, 2016, p. 16),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평등의 가치와 공감의 마음, 보편적 사랑과 정의로운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20세기 그리스도교 신학의 거봉인 한스 쿡(Hans Kung, 1928-2021)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분석한 그의 명저 『왜 그리스도인인가』(*Die Christliche Herausforderung*, 1980)에서 이천년의 그리스도교 역사 동안 진행되었던 쟁점 중의 하나인 개인의 의화(義化)와 사회 정의의 관계에 대한 대립적 시각은 낡은 질문이 된 지 오래이며, 전자와 후자는 어느 한쪽을 취사선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p. 425). 그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신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열망했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자기와 타인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p. 426), 이 열망을 일상에서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 현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가치임을 상기시킨다. 곧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개인과 사회는 분리할 수 없으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의로움에 대한 열망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본질적 영성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모든 억압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고유한 인간성을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갈망과, 불의하며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열망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상호 일치하며 협력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동선 사이의 상호연결성은 또한 각 사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성을 분석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영성에 대한 개인의 관심은 종교의 개인화 양상과 함께 현대사회를 일컫는 용어인 ‘탈사회적 사회’의 종교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여기서 ‘탈사회적’(postsocial)이라는 말은 사회를 이탈하거나 반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시대의 특징과 변화를 포착하여 “새로운 관계 맺음의 형식을 조명하고자 하는 용어”(하홍규, 2021, p. 73)를 뜻한다. 또 이때 조명되는 개인은 고전 사회학자들이 규정한 단지 개별화되고 파편적이며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체-중심적인, 개인화된 존재”로서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인화된 존재들”(하홍규, 2021, p. 73)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이 개인화된 존재들이 현대사회에서 제도 종교에서 벗어나 주관적 종교를 생성하리라 예측했는데, 종교는 제도와 형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적인 초월성의 바탕이기에, 제도 종교가 이 초월성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제도 종교는 한계에 봉착하고 주관적 종교가 촉발한다고 분석한다(김덕영, 2007, pp. 455-457). 현대사회의 영성에 관한 관심의 증폭 역시 제도 종교가 현대인의 종교적 욕구, 즉 내재적 초월성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수 없을 때 대안으로 나타나는 “객관 종교에서 주관 종교로의 전환”(김덕영, 2007, p. 457)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짐멜이 분석한 그리스도교의 외적인 전통과 내적인 초월성의 긴장 관계는 외적 민주주의와 내적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교가 그 본질적 기능인 내적인 초월성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지 못할 때,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 온 종교적 제도와 형식도 쇠락에 직면하듯이, 외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장이 내적 민주주의의 일상적 실현을 담보해 주지 못하며, 내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재화 없이는 외적 민주주의도 한계에 봉착하고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관적 종교의 주체인 개인은 사회학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프랑스의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 1858-1917)이 분석한 근대 사회의 인간과 종교성의 관계도 상기시킨다. 뒤르케임은 근대 사회에서 제도화된 종교는 “사라진다고보다는 변형되도록 요구받는 것 같다”(1912/2020, p. 798)라고 말하는데, 그는 제도로서의 특정 종교는 쇠퇴하더라도 인간이 지닌 종교성은 살아 움직이면서 사회라는 실체 안에서 새로운 이상과 원리들을 창조해 갈 것으로 예측한다(p. 794). 19세기 근대 산업화가 초래한 공동체의 분절과 그 가운데 진행된 전통적인 제도 종교의 쇠퇴와 인간 개별화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뒤르케임은 사회의 이런 기능적 분화가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 곧 영성을 소멸시킬 수는 없으며, 이 영성은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로 귀결될 것임을 전망한다. 뒤르케임의 선배 사회학자인 생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 1760-1825)이 ‘새로운 기독교’로, 콩트(Comte, Auguste Comte, 1798-1857)가 ‘인간성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한(민문홍, 2001, p. 93), 이 새로운 종교는 뒤르케임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예배자이자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종교”이다(1979, p. 8). 이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유럽에서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지만, 근대의 탈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시민성과 종교적 특징이 만난다는 점에서 ‘시민 종교’라고 불릴 수 있다. 또 이 시민 종교의 추동력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동정, 모든 고통받는 것과 모든 인간적인 비참한 것에 대한 보다 넓은 애석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분쇄하고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더욱 불타는 요구, 정의에 대한 보다 큰 갈망”(p. 11)이라고 역설한다.

뒤르케임이 전망한 ‘인간을 존중하는’ 이 새로운 종교의 속성은 인간의 고유성과 존엄성에 기반한 현대사회의 공통 가치인 민주주의의 특징이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공동번역 성서, 1986, 마태오 25:40)이라는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가르침이자, 어떤 외적 조건이나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생명의 신성성을 연결하고 촉진하는 영성의 속성이기도 하다. 특히, 이 새로운 종교의 특징은 일상에서 파편화된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 한국 사회의 개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12.3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표출한 인권과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와도 닮아있다. 뒤르케임은 이 시민 종교의 세 가지 요소를 첫째는 인간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정, 둘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연대, 셋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다양한 행사와 주기적인 의례를 통해 이 믿음을 기억하고 강화하는 것(민문홍, 2001, p. 93)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시민들이 창조한 광장의 연대는 뒤르케임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민 종교의 의식(儀式)’이라고 볼 수 있다.

내적 민주주의와 뒤르케임의 시민종교는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일상성과 연관된다. 곧 개별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와 행동은 나와 내 이웃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여기에서 자유와 평등, 생명의 존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갈망의 적극적 표현인데, 이는 제도 종교의 역사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본질적 영성이자 현대에 회복해야 할 ‘일상 영성’(박문수, 2022, p. 75)과 상통한다. 예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공동번역 성서, 1986, 마태오 6:10)라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의 초월적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땅을 꿈꾸었다. 짐멜 역시 내적인 초월성은 일상적 개인의 삶을 벗어나 하늘의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내세적 갈망과 헌신, 축복과 저주, 정의와 은총이 [...] 삶 그 자체의 가운데라는 심층 차원에서 발견”(김덕영, p. 457)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종교 조직과 전통적인 제도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삶 가운데 실천되는 영성은, 거대한 정치 담론과 정치인들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 시민들이 이루어가는 민주주의의 여정과 상통한다. 이는 “담박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여진 일상은, [...] 우리가 하느님과 그의 숨은 은혜라 부르는 저 영원한 불가사의와 무언의 신비를 담고 있기”(Rahner, 1980/2010, p. 8) 때문이며, 이 신비가 가능한 이유는 이것이 “다 인간이 행한 일상이기 때문이다”(Rahner, 1980/2010, p. 9). 이런 면에서 12.3 계엄의 극복을 주도했던 ‘평범한’ 시민들은 뒤르케임이 말한 인간 존중의 새로운 종교의 예배자들이자, 하늘나라의 초월적 뜻을 땅에서 일상에서 함께 실현해 가는 사회적 영성의 주인공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구조와 제도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개인화된 존재이면서 공동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주체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연민, 자유와 평화라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데 가까이 헌신하는 존재라 하겠다.

5. 결론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성장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수평적인 관계성이 일상에서 실천되는 내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내적 민주주의의 특징과 영성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고취와 실천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12.3 계엄의 험난한 잔재를 헤쳐가고 있던 2025년 봄학기 수업이었다. 현재 국내 상황은 많이 안정되었지만, 그때에는 온 국민이 살얼음판 같은 역사의 흐름을 인내하는 가운데, 일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때였다. 수업에서 학생들은 불법 계엄으로 드러난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하며, 공기처럼 누렸던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쏟았던 노력의 의미를 나누고 싶어 했다. 더불어, 제도로써의 민주주의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즈음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진정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그 질문은 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의 표출이기도 하다.

내적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개인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연결성에 대한 통찰, 이 통찰에서 발현되는 실천적 삶의 힘은 영성의 속성이기도 하며, 이런 영성은 모든 개별 생명의 합일적 관계성을 직관하는 다양한 사상과 종교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온 가치이자 한국 민주주의 성장의 정신적 토대이기도 하다. 영성은 그 속성이 공동의 선을 지향하기에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 차원을 포섭한다. 이런 면에서 굳이 '사회적 영성'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나와 타자와의 연결성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타자에 대한 공감과 개방성, 공동의 선을 향해 연대하는 영성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식되고, 체화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사회적 영성은 신자유주의의 독점적 지배가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강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물질과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리스도교의 개념을 중심으로 영성의 특징을 논의했지만, 이런 특징이 그리스도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한국의 사상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으로 강조되고 실천됐다는

점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내적 민주주의와 영성이 내포하는 개방성과 수평성의 강조가 폭력과 억압에 기반한 정치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과의 타협이나 이들에 대한 법적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2.3 불법 계엄이 공포된 이후로 1년이 지나도록 내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고, 한국 사회의 사법과 정치, 경제, 종교적 이득이 얽힌 카르텔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지 시민들은 거듭 목격하고 있다. 영성을 원천적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종교가 공동선, 평등과 타자에 대한 공감, 보편적 사랑과 정의라는 영성의 특징에 반하는 가르침과 행위로 사회적 부패와 혼란의 진원지로 지탄받고 있는 것도 한국 사회의 모습이며, 12.3 불법 계엄의 정확한 원인과 과정 규명 및 이에 따른 법적 처벌과 사회적 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기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아직 이른 작업일 수도 있다. 하지만, 12.3 불법 계엄과 이에 맞서 광장에서 연대했던 수많은 시민과 민주적 시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여성들의 창의성이 이 논문의 출발이었기에, 이 공간을 빌어, 비교적 견고하게 정착했다고 믿었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섰던 이들과 일상에서 이 길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 특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해 낸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들의 자발적인 형성과 해체의 순환적 연대는 물과 바람처럼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수많은 다름을 공동선의 목표 아래 연결하고, 불처럼 뜨겁게 폭력과 분열의 쇠사슬을 녹이면서 민주주의 여정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의 지속과 더 온전한 실현을 향한 개인적 열망과 의지의 적극적 표현이 창조해 낸 연대의 체험은 창의성과 영성의 통합적 특징을 발산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물줄기를 내었다고 하겠다. 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광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자유롭게 합일되어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현 방식이 민주주의의 여정과 관련한 향후의 구체적인 선택에서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방향이 무엇이든,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에서 민주적 가치의 작동 여부를 섬세하게 살피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내재화로써의 사회적 영성의 회복과 확산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이는 영성이 종교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향한 개별적인 주체들의 자유로운 합일에 대해 긍정하고 촉진하는 힘이기 때문이며, 이 점이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논하면서 철학자들이 영성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공동번역 성서 (1986). 대한성서공회.
- 김경은 (2016). 기독교 영성과 민주주의. *새가정*, 63, 15-19.
- 김덕영 (2007).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 김상봉 (2024). *영성 없는 진보*. 온뜰.
- 김응교 (2014). 망루의 상상력, 사회적 영성. In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pp. 69-88). 현암사.
-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 김진호, 엄기호, 백소영, 김응교, 황진미, 자우녕, 정경일, 정용택, 박정은, 조민아, 최형묵, 김신식, 이택광, 신윤동욱 (2014). *사회적 영성*. 현암사.
- 남기엽 (2024). 병든 믿음과 영성 부재가 민주주의 위기의 근인(根因)인가?. *씨알의소리*, 290, 96-112.
- 민문홍 (2001).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현대성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아카넷.
- 박문수 (2022). *옆집의 성인*. 바오출판사.
- 이항직 (2021). 민주주의 위기와 '힘의 정치' 비판. *현상과 인식*, 45(3), 43-70. DOI : 10.46349/kjhss.2021.09.45.3.43
- 하홍규 (2021). 탈사회적 사회의 종교: 자기만의 신, 신으로서의 개인. *현상과 인식*, 45(3), 71-96. DOI : 10.46349/kjhss.2021.09.45.3.71
- 황정미 (2014). 세월호 국면에서 나타난 사회적 영성. In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pp.89-111). 현암사.
- Britannica Dictionary. (n.d.). Creativity. In *Britannica Dictionary*. Retrieved January 2, 2026, from <https://www.britannica.com/dictionary/creativity>
- Bronet, J., & Borge, R. (2025). The Internal democracy of the crisis parties in Western Europe: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digitalization, ideology and populism. *Open Reserach Europe*, 5, Article 288. DOI : 10.12688/openreseurope.21115.2
- Durkheim, E. (1898). *L'individualisme et les intellectuels*, 박영신 역 (1979). 개인주의와 지성인. *현상과 인식*, 3(4), 5-20.
- Durkheim, E. (1912).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민혜숙, 노치준 역 (2020).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한길사.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Democracy Index 2024*. <https://www.eiu.com/n/democ->

racy-index-2024/

Küng, H. (1983). *Die christliche Herausforderung*. 정한교 역 (2025). **왜 그리스도인인가**. 분도출판사.

Levitsky, S. & Way, L. A. (2015), The myth of democratic recession. *Journal of Democracy*, 26(1), 45-58. DOI : 10.1353/jod.2015.0007

Rahner, K. (1980). *Alltägliche dinge*, 장익 역 (2010). **일상**. 분도출판사.

V-Dem Institute (2025). *Democracy Report 2025: 25 years of autocratization - Democracy trumped?* University of Gothenburg. https://www.v-dem.net/documents/60/V-dem-dr_2025_lowres.pdf

Wilson, E. O. (2017). *The origins of creativity*, 이한음 역 (2020). **창의성의 기원**. 사이언스 북스.

Creative Journey of Democracy and the Need to Restore “Social Spirituality”

SOJIN PARK Professor,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reativity and Converg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the creative solidarity formed among individual agents during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embodies an integration of creativity and spirituality. This phenomenon not only broadens the horizon of Korean democracy but also underscores the imperative of inner democratic maturation. By illuminating the significance of the December 3rd martial law, the study highlights creative solidarity and “social spirituality” as essential elements for advancing Korea’s democratic development from within. The foundation of creative solidarity lies in creativity, which manifests through the communication of human experiences, thoughts, and emotions aimed at achieving holistic self-understanding. Such creativity sustains belief in individual uniqueness, openness to others, and awareness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self and others. This spiritual dimension rejects artificial boundaries and separations, fosters free communication, and encourages collective pursuit of the common good. Spirituality, grounded in a belief in fundamental human connectedness, aligns with the core democratic values of equality and relationality. The study emphasizes that this spirituality must extend beyond personal internalization to achieve social embodiment,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Christian thought.

Keyword

December 3rd Martial Law, Creativity, Creative Solidarity, Social Spirituality, Internal Democracy, Ordinarity